



일주문

봉암사 조실 추대법회

진제 동화사 금담선원 조실스님은 구산선문 회양산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로 추대되어 12일 오전 11시 봉암사 대웅전에서 추대법회를 갖는다.

서광사 민등불사 입제 법문

도법 실상사 주지 스님은 15일 오전 10시 대구 팔공산 서광사 민등불사 입제식에서 법문한다.

통도사 성보예술제

범하 통도사 성보 박물관장 스님은 6일까지 '제2회 성보예술제'를 개최한다. 개막식은 오후 2시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불국사 총동문회장 재선

종후 노적사 주지는 최근 열린 불국사 총동문회에서 동문회장에 재선출했다. 고문에는 상목·도행·지옥 스님이, 부회장은 종연·웅각 스님, 사무처장은 심우승님이 선출되었다.

변산 한울공동체 생태기행

법륜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이사장은 7·8일 변산한울공동체 마을에서 '생태적 삶을 찾아서'란 주제로 생태 기행을 연다.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9월 28일 해인사 주지에 세민스님을 임명했다. 현 주지 보광스님의 임기는 11월 20일 만료된다. 1943년 대전 출생인 세민스님은 해인사 강원 대학교, 일본 교토 불교대를 졸업했으며, 동국대 교육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총무원 재무부장과 조계사 주지, 8~10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한글발전 공로상 수상

이만덕 前이화여대 국문과 교수는 9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글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관광부로부터 한글발전 공로상을 수상한다.

한일 국제학술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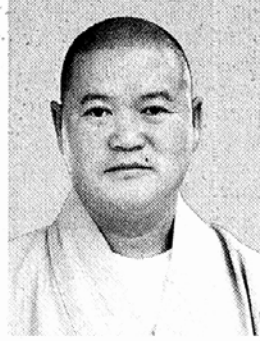
명명대 동국대 교수는 9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본 호류지(법흥사)를 주제로 '제4회 한·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국제 서화대상 준대상 수상

곽한영 불교 서도가는 9월 오후 1시 30분 동경도 서화관에서 국제 서화대상 준대상을 수상한다.

"수용 아님 생활복지 지향"

소적새마을 새 원장 현각 스님



"오늘날의 장애인 복지는 '수용'의 개념에서 '생활'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신인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이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마을 식구들의 생활향상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소적새마을 새 원장을 맡게 된 현각스님(원주 성불원 주지)은 시설화장 등 외형적 성장보다는 직원들과 마을 식구들 살림살이에 최우선의 비중을 두겠다고 말했다. 26명의 직원과 180여명 수용자들의 생활수준을 지금보다 한 단계 향상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소적새마을을 후원하는 후원자들에게 대한 보답이라는 것이 현각스님의 생각이다.

"몇 달전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는 아직 못했지만 진실과 애정을 갖고 대화하다 보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타협할 것은 타협할 것입니다. 직원들이

모두 애착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용자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 운영에 대한 소신과는 달리 몇 해 전부터 추진돼 오고 있는 강원도 청성 종합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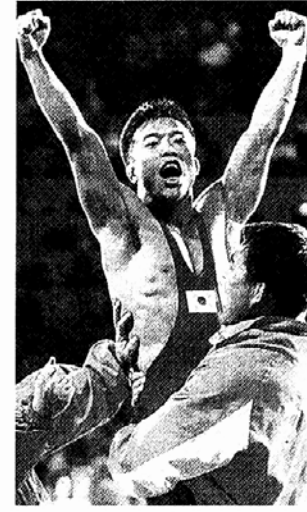
"복지타운 진입로를 개설하는 데만도 부지매입 등 35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재 소적새마을은 그럴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시기와 내부사정에 맞는 합리적 판단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내실을 다지는 것입니다."

현각스님은 강원도 원주 성불원을 비롯해 명륜사회종합복지관, 원주시립복지원, 원주성불신용협동조합 등 10여개 이상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번 소적새마을을 맡게 된 것은 과도기에 놓인 소적새마을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싶었고, 이것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명감 때문이다.

"소적새마을은 한 차례 큰 시련을 겪었던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신다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각스님은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올림픽 2등급 석권 심권호

"삼천배 했어요"

어머니도 매일 새벽불공

"7년동안 태극선수촌 자승전 법당에서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참선과 기도를 하며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생각입니다."

9월 1일 시드니로 떠나기 전 자승전 법당에서 만난 심권호 선수는 올림픽에 임하는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승부의 갈림길에서도 평소 참선을 통해 훈련된 냉정한 승부 근성이 빛을 발한 것일까. 9월 26일 시드니에서 승전보가 날아왔다. 심권호 선수가 한국 올림픽사상 처음으로 2등급을 석권하며 한국에 5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심권호 선수는 5월 단양 구인사에서 레슬링 동료선수 10여명과 함께 3천배 정진 훈련을 했을 정도로 마음순수불자회에서 신심이 돈독한 선수로 꼽히고 있다.

심권호의 어머니 이화순(51)씨도 지난해 심권호가 체급조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은퇴를 결심한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서 새벽불공을 드리며 지극 정성으로 금메달을 기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법륜사 신도인 이씨는 "권호가 불·보살의 가르침 꼭 해낼 줄 알았다"면서 "그동안 성원해 준 불자와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opia.com)

승무 명인 정경파씨 별세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살풀이춤의 기능보유자인 옥당 정경파 선생이 9월 28일 저녁 8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7세.

평생을 춤과 함께 살아온 고인은 화성 재인정의 마지막 도대방이었으며, 재인정이 있던 자리인 수원시 신흥동 화령전에서 우리 전통춤의 계승 발전에 힘써왔다.



불교지도자 백령도 통일환경시찰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9월 25·26일 백령도로 '불교지도자 통일환경시찰'을 다녀왔다. 각 종단지도자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역사관 관람에 이어 해병대 6여단에 리본 50락스와 축구공 10개 등을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또 후속사를 방문, 금일봉 전달식도 가졌다.



대부도 자현사 삼존불 점안

대부도 자현사·동지청소녀의 집(주지 법현)은 9월 24일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지종스님과 백양사 주지 대정스님, 불갑사 주지 도성스님 등 비롯한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명성여고 수재의연금 전달

명성여고(교장 이원주)는 9월 28일 전교생들이 모금한 수재의연금 2백여만원의 조계종 총무원장 원택스님에게 기탁했다. 이 자리에서 원택스님은 "학생들의 보시 정신을 되새겨 수재로 아픔을 당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대표로 온 명성여고 학생회장 공예지양에게 말했다.



군불교진흥회 해병 무애원 위문

군불교진흥회(회장 정각)는 9월 24일 해병 2사단 군법당 무애원을 방문, 군 장병을 위문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비사 주지 혜정 스님과 군불교진흥회 부회장 해병 법사, 이화전 예비역 군법사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돌아오는 길에 김포 청룡사, 선원사지를 참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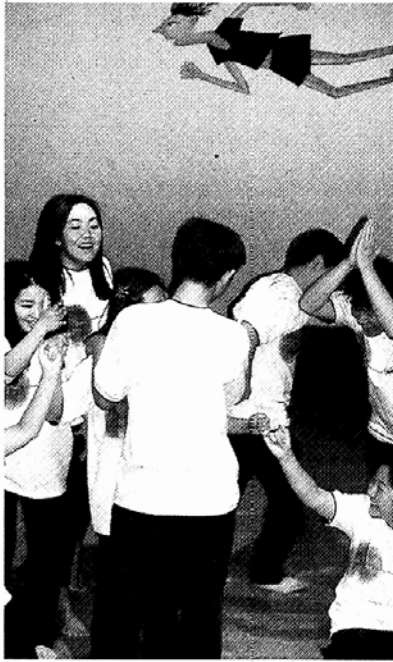
"기와의 전통문양 조화미 추구"

수북강변전 연 이진주씨

"다양한 전통 불교문양을 옛기와의 응용해 새로운 미술작품 창작에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젊은 불자화가 이진주씨의 말이다. 대구 계명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이씨는 31살의 젊은 나이에 4번의 개인전을 열 정도로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씨는 9월 20~26일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가진 '수북강변전'에서 보살화문양, 연꽃문양, 동식물 문양, 십장생 등 우리 전



통 민화와 불화 등에 등장하는 각종 문양들을 단청물감을 이용해 고종스런 옛기와의 표현해 주목을 끌었다. 이씨는 "수키와 암키와 등 다양한 기와들을 이용, 우리 전통 조형미와 불교적 회화미가 가미된 작품을 내년쯤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elee@buddhopia.com)



종교벽 넘어 동심으로 '하나'

Focus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9월 27일 저녁 서울 경동교회내 여해문화공간에 모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6개 종교 청년들은 모처럼 어린 시절로 돌아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며 함박웃음을 터트렸다. 30일까지 열린 '밀레니엄 2000 종교청년문화축제'는 노래국, 영화제, 음악회 등을 통해 각 종교 청년들이 종교의 벽을 넘어 새로운 종교문화 창조의 디딤돌을 마련했다. 권형진 기자

무진장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강좌

유마경 대강좌



근세 한국불교포교에 앞장섰던 무진장 큰스님께 직접 대승불교경전을 공부할 평생경전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뜻을 기리고 수행공부코저 합니다.

- 1.강의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1년)
- 2.교육장소 동산교육회관(안국동로터리 운전센터리 2층)
- 3.개강일시 2000년 11월 5일(일) 오후 6시
- 4.개설경전 유마경·육조단경·금강경·선가계감·원각경·천태학·법화경·회엄경등
- 5.입지수계 매과목 경전공부후 정기적으로 무진장 큰스님으로부터 입지수계
- 6.입학금 50,000원
- 7.특별하신 모른분들께 유마경교재와 기념책가방을 드립니다

- *유마경은 불이법문으로 유명하며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는 한역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유마할소설경입니다.
- *유마경 보살품 제 4. (광업동자와 도량) 그때 유마할 거사는 성안으로 들어 오고 있었다. 광업동자가 인사를 하고 물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도량에서 오는 길이야" 광업동자가 물었다. "도량은 어디입니까?" 유마할거사는 대답했다. 직심(直心)이 도량이며, 심심(深心)이 도량이며, 보리심(菩提心)이 도량이니라".....

* 문의 : 사무국 ☎ (02) 732-1206~8 / FAX (02) 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불심으로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천사·사회복지법인 인덕원에서는 질병의 고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불심으로 모시기 위해 북한산 자락에 노인전문요양원을 설립하고, 입소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24시간 간병으로 어르신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불심으로 모실 보살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 ▶ 입소대상자 : 60세 이상의 치매, 중풍 및 기타질환 어르신
- ▶ 서비스내용 : 의료서비스 (한방과, 내과, 정신과, 산부인과, 예방의학 등) 물리치료, 정서 및 인지프로그램, 수지침, 발반사,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 ▶ 기 타 : 생활용품 일체제공 / 영양사의 철저한 식단관리, 위생적인 일상생활지원이 지장입니다.

근무할 종사자를 찾습니다

- ▶ 모집분야 : 간호조무사 및 간병인
- ▶ 자 격 : 자격증소지자 및 교육수료자등 관련자로서 30대~50대의 여성불자 우대
- ▶ 보 수 : 사회복지시설 급여기준에 준함
- ▶ 구비서류 : 이력서(사진) / 자격증(수료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매

본인 내시요망

삼천사·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인덕노인복지회관

(인덕치매단기보호소/노인전문요양원 호암 마을)

문의 : ☎ (02) 385-8205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488번지